

한국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

양 옥 경*

본 연구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을 비롯한 13개 사회복지 관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정립에 관한 사회복지학에서의 학문적 위상을 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효과성연구는 총 18편으로 전체 출현율 1.28%였으며, 국내 유사분야나 국외 사회복지학계의 연구논문 출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었다. 실험-통제연구는 4편에 불과하였고 의사실험연구도 10편에 머물렀으며, 그나마도 방법론적 오류가 종종 관찰되어 그 결과를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웠다. 연구의 주요문제는 정신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개입의 대상으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입프로그램도 가족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집단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앞서 살펴본 임상사회복지실천 관련 연구논문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여서 전체 출현율 8.75% (효과성연구포함) 수준이었다. 이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임상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결국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위상을 위협하는 결과라 하겠다. 18편의 연구들 대부분이 ‘~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분석을 한 것인 반면에 프로그램개발과 사례연구에서는 일반사회복지실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천 모델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개발된 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효과성검증의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임상사회복지학의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의 전개, 실무현장과의 공조체계확립, 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 교육 및 재교육의 강화, 그리고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는 연구업적물의 시대별, 그리고 저자 유형별로 교차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 서론

본 연구는 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그 중에서도 미시적 접근인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논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이 효과 있다 또는 효과 없다는 논의를 떠나,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정립에 관한 사회복지학에서의 학문적 위상을 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효과적인 임상사회복지실천을 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계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임상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사회복지실천의 임상적 목적은 개입이다(Fortune, 1999: 2). 따라서 그 개입이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타나는가에 관심이 기울게 되어 있다. 임상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실무자인 사회복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입의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일반인들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하는 임상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량적 사실(*hard, cold facts*)을 알고 싶어한다(Smith, 1996: 3, Thyer(1997) 재인용). 그러므로 어떤 임상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만큼 효과적인가 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명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McMahon et al., 1991: 5)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임상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아니다의 논란은 30여 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활발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실천은 '효과 있

다' 라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특히 임상실천의 선진국에서의 결론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Rubin(1985)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6년간 출간된 12개의 잘 설계된 통제연구를 분석한 결과 명료하게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면 사회기술훈련과 같이 문제해결이나 과업중심의 접근 방법은 정신분열병 외래환자나 정신지체인, 학교적응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그 이전에 있었던 22개의 논문을 분석한 Reid 등(198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600개가 넘는 논문을 분석한 Thomlison(1984)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

최근 Gorey(1996)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발행된 13개 전문잡지에 게재된 논문 88개를 메타분석(Meta Analysis)한 결과, U_3 값 75.0으로 75%의 효과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보다 앞서 통계방법을 활용한 양적 메타분석의 최초 연구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Videka-Sherman(1988)의 연구 역시 사회사업적 개입이 정신건강 분야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지는바, 이상균(2000)은 현재까지 소개된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16개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 역시 73.7%의 효과율로 전반적인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효과성연구와 기타 임상실천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실을 점검하고자 함에 그 목표를 두었으며, 효과성연구에 관하여 집중적인 내용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가 1947년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한 것을 선두로 한국에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지 50여 년이 지나고 1979년 사회복지학회가 창간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사회복지실천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이미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려진 임상사회복지실천이 어떤 형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위상을 정립하여 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실천 효과성 관련 논의들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연구와 실천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인지되어 왔다(Preston, 1956). 그러나 연구를 실천에 통합시켜 과학적으로 실천의 효과를 검증해내는 작업은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천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효과라고 할 만한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면에서 한계를 보여온 것이다.

Joel Fischer(1973)는 지난 40년간 개별사회사업 분야에서 단지 11개의 실험/의사 실험연구(*experimental/quasi-experimental*)가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Wood(1978) 역시 22개 연구를 분석하였으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들은 임상실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현 *Social Work Research*)와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의 창간, 그리고 1991년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의 발간은 임상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와 함께 효과성분석 연구에도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상사회복지실천 개입의 통제연구가 거의 없음을 통탄해하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El, 1996: 585). Thyer(2000: 8)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여, 사회복지실천의 연구가 묘사적이고, 설명적인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같은 연구들이 효과성 검증을 위한 통제연구(*well-controlled study*)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70년 임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연구가 있다(Crisp, 2000).

반면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해 온 가족치료(*family therapy*)와 심리치료(*psycho therapy*)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속출하였다(Thomlison, 1984). Smith 등(1977)은 475개의 효과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심리치료가 명료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Thomlison, 1984: 52 재인용). Bergin과 Lambert도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placebo, 또는 pseudotherapy를 받은 사람보다 분명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Thomlison, 1984: 52 재인용).

사회복지학계에서 최초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Videka-Sherman(1988)은 정신건강분야에서의 임상사회복지실천 개입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orey(1996)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발간된 13개 전문잡지에 게재된 88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분석은 분석자료의 대표성의 문제(Hogarty, 1989)와 Dodo bird effect(도도새 판정)의 문제(Wampold et al., 1997)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클라이언트의 '개별화'가 완전히 무시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기술훈련(*skills training*)개입, 지지적(*supportive*) 개입, 그리고 약물치료(*psychoactive drug treatment*) 개입 등 사회복지사가 관여하는 정신건강분야의 개입은 정신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한 Videka-Sherman(1988)의 주장은 각각의 개입방법이 정신과 환자의 어떤 유형에 효과가 있는지를 무시한 결과로서,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약물치료는 임상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개입방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문제에 효과가 있으므로 각 문제에 대한 각 해결(개입)방법간의 참된 효과의 차이는 '0'(zero)이다. 따라서 분석결과 모두 승자가 되는 도도새 효과를 내는 메타분석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Wampold 등(1997)의 주장은 귀기울일 만한 것이다. 사실 메타분석은 '효과 있다'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었던 실천의 결과만 논문으로 되어 학술지나 논문집 등에 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file drawer effect"라 부르는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는 그 사례를 파일상자에 넣어 놓고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있는 것만 접하게 되어 있다. 이는 메타분석의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에 대해 Gorey 등(1998)은 임상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실천모델들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각각의 모델은 각각 계획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임상실천분야에는 인지-행동적 개입(*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 3배 이상 자주 사용되지만, 이 모델이 개인적인 대인관계(*personal adaptation*)의 문제에 효과가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부분의 변화(*change of other targets*)에 대해서는 문제해결(*generalist problem-solving*), 과업중심(*task-centered*), 체계론적(*systematic*), 그리고 급진적 사회사업 오리엔테이션(*radical social work orientation*)이 5배나 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Gorey et al., 1998:

274). 따라서 어느 한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에 너무 수량적인 연구효과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메타분석 역시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할 수 없는, 즉 통계분석을 하지 않은 논문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포함한 모든 질적 연구의 효과성은 메타분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질적 개입효과 측정(*qualitative outcome measure*)에 눈을 돌리고, 치료자 영향(*therapist effect*)에 관해서도 고려하며(Wampold et al., 1997: 211),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실무자들도 계속해서 그 효과성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축적된 결과물을 강조하고, 중요한 임상관련 지식을 쌓기 위한 장기간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Rubin, 2000: 12)는 것이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상호보완적 측면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Allen-Mears, 1990).

사회복지실천의 장은 넓고 깊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방법에 결론을 맡기고 안주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다양한 효과성검증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artman(1990)은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효과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방법론에 의한 결과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한국사회복지학이 창간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임상사회복지실천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연구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개별 임상연구자들에 의해 자신의 임상실천의 효과성을 분석해 놓은 연구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편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이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1993년 《한국아동복지학》을 비롯하여 1999년 현재까지 5개 임상사회복지실천 관련 세부 전공학술지가 발간되고 있고, 임상사회복지실천 연구자들이 빈번히 자신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다학문 전문학술지가 1980년 《한국노년학》을 비롯하여 1999년 현재까지 6개 발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역시 1994년부터 연구논문섹션을 할애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같은 연구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 먼저 시도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종합적인 분석연구는 아마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기획한 ‘한국사회복지학의 진단’의 차원에서 발표된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분석과 과제”일 것이다(최균, 1995). 임상사회복지실천분야에 대한 별도의 분

석이 없어(사회사업실천기술과 이론,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분석)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이 발표에서 최균은 임상관련 연구에서는 90년대 들어 가족치료연구와 정신건강 관련연구가 증가하는 반면, 아동복지 관련연구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연옥(1998)도 한국의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을 밝힌 논문에서 경험분석연구 중 사회사업실천 논문이 총 16편인 12.8%의 점유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 역시 효과성 관련연구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황성철(1998)은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 실천을 위해 다양한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 실천은 어느 한 가지 모델을 적용하거나 어느 특정 개입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적 특수성에 따라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다양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같이 효과성분석 논문 부재의 심각성, 효과적 모델 추출에 따른 임상적 특수성의 한계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상균이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 봄호에서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유일하면서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효과성 연구의 결핍과 이론의 부재라는 커다란 한계를 안고도 메타분석을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실천 프로그램이 73.7%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별로 사례수 1개, 3개, 혹은 8개의 한계를 갖고도 대상자 영역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영역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연구는 사회복지학계에서 발간한 연구물을 경험적으로(*exploratory*)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란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와 대면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그 효과에 관해 논의한 연구논문으로, 제목에 ‘효과(성)’ 연구라고 표기한 것”을 말한다.

1) 자료수집

(1) 자료수집과정

첫째, 전문 학술지는 사회복지학회, 세부전공관련학회,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논문들이 게재되는 다학문 전문학회의 학술지들을 선정하였다. 가능한 임상실천분야 논문이 게재되는 모든 학회의 학술지를 모두 보고자 하였으나, 본 발표자가 알지 못하는 학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선정된 학술지는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한국사회복지학》과, 세부전공관련학회들의 학술지인 《한국아동복지학》,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한국가족복지학》, 《노인복지연구》, 《학교사회사업》, 그리고 다학문 전문학회의 학술지로는 《한국노년학》, 《직업재활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청소년학연구》, 《정신보건》, 《한국영유아보육학》,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로 총 13종이었다. 《한국영유아보육학》을 제외한 (영유아보육학회의 간사가 찾을 수 있는 학회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학술지는 창간호부터,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는 연구논문들이 실리기 시작한 1994년 121호부터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학술지, 혹은 목차를 일일이 점검한 후, 효과성 연구논문을 가려내었다.

셋째,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각 대학의 연구논집, 그리고 석, 박사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제외한 이유는 첫째, 모든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둘째, 대부분의 경우 발표 후 논문이 되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각 대학의 연구논집을 제외한 이유 역시 모든 대학의 연구논집을 총 망라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석, 박사학위논문을 제외한 이유는 다시 논문이 되어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논문쓰기만을 위한 일회성 실천인 경우가 많아 자칫 전문적인 실천의 효과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

(2) 자료수집의 한계

가능한 한 모든 임상관련 학술지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누락된 학술지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제목에 “효과(성)” 연구라고 밝히지 않은 효과성검증연구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갖고 분석에 임하였다.¹⁾

2) 분석 기준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논문의 분석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 ① 임상실천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반복활용 가능하도록 자세히 소개하였는가?
- ②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어떤 이론이 주로 사용되었는가?
- ③ 적합한 연구설계와 가설이 설정되어 있는가?
- ④ 연구대상은 누구이며, 표집 및 배치(집단의 경우)는 잘 되어 있는가?
- ⑤ 어떤 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는가?
- ⑥ 적합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 ⑦ 효과성 유, 무에 관한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효과는 있다고 하는가?

4. 연구결과 및 분석

1) 임상사회복지실천연구논문 분석

(1) 임상사회복지실천연구논문의 출현빈도

효과성연구 논문 분석에 앞서 임상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우선 살펴보았다. 임상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효과성분석, 모델적용, 사례연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척도개발 등을 임상사회복지실천 연구논문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임상사회복지실천 연구논문의 출현빈도는 매우 낮

- 1) 제목에 효과성연구라고 밝히지 않으면서 본문에서는 효과검증을 한 논문들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부분이 프로그램개발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저자들이 해당 논문은 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지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 아님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하나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해보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수준으로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실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면 효과연구라고 칭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제목에 밝히지 않은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표 1〉 사회복지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실천논문 출현빈도

(단위 : 편, %)

학술지 명	학회 명	총수록 논문	임상실천 논문(a)	효과성분석 논문(b)	기타임상실천 논문**(c)
한국사회복지학* (1979 창간호-1999)	한국사회복지학회	397	55(13.85)	8(14.55)	47(85.45)
한국아동복지학 (1993 창간호-1999)	한국아동복지학회	69	3(4.35)	1(33.33)	2(66.67)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94 창간호-1999)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54	14(25.93)	3(21.43)	11(78.57)
한국가족복지학 (1997 창간호-199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4	4(16.67)	-	4(100.00)
학교사회사업 (1998 창간호-1999)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15	6(40.00)	-	6(100.00)
노인복지연구 (1998 창간호-1999)	한국노인복지학회	56	1(1.79)	-	1(100.00)
한국노년학 (1980 창간호-1999)	한국노년학회	288	5(1.74)	1(20.00)	4(80.00)
직업재활연구 (1991 창간호-1999)	한국직업재활학회	40	1(2.50)	1(100.00)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93 창간호-1999)	한국가족치료학회	59	16(27.19)	-	16(100.00)
청소년학연구 (1993 창간호-1999)	한국청소년학회	65	1(1.54)	-	1(100.00)
정신보건 (1996 창간호-1999)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45	7(15.56)	4(57.14)	3(42.86)
한국영유아보육학 (1993-1999)/(13집-1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7	2(2.06)	-	2(100.00)
사회복지 (1994, 121호-199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6	8(4.08)	-	8(100.00)
계		1,405	123(8.75)	18(14.63)	105(85.37)

* 창간호(1979) - 제6권(1984) : 사회사업학회지; 제7호(1985) - 제8호(1986) : 사회복지학회지;
 통권 제9호(1986) - 통권 제37호(1999) :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8호(1999, 가을호) - 현재: 계간 한국사회복지학.

** 기타 임상실천논문에는 모델적용연구, 사례연구, 프로그램개발연구, 프로그램소개연구,
 그리고 임상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연구를 포함한다.

(a) = 임상실천논문/총수록 논문;

(b) = 효과성분석논문/임상실천논문;

(c) = 기타 임상실천논문/임상실천논문

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05편 중 123편을 차지해 평균 8.75%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임상실천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학회지는 《한국가족치료학회지》로 16편을 게재하여 27.19%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4편, 25.93% 출현율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이다. 《한국사회복지학》은 397편 중 55편으로 13.85%에 머물렀다.

임상사회복지실천 논문들을 효과성검증 논문과 기타 논문으로 나누어 보면 효과성검증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성검증 논문이 한 편도 게재되지 않은 학술지부터 임상사회복지실천 논문 1편이 효과성검증 논문인 학술지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지만, 평균 15.38%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은 다른 학술지에 비해 평균을 밑도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단순히 임상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논문까지도 임상사회복지실천 연구논문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임상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학문적 관심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특히 후반에 들어와 임상과 연계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전문학회들이 연구논문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은 발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2) 기타 임상실천연구논문의 특성

① 기타 임상실천연구논문의 출현빈도

효과성검증 논문을 제외한 기타 임상실천 연구논문들을 모델적용 및 사례연구, 프로그램개발연구, 척도개발연구,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모델적용 및 사례연구의 논문게재 비율은 27.62%로 낮았으며, 단순한 프로그램 소개 연구가 46.67%로 가장 높았다. 임상효과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는 6편(5.71%)에 머물렀고 그 중 3편이 《한국사회복지학》에 몰려 있다. 프로그램개발 연구도 21편(20%)에 그쳤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재활연구》에는 1편의 기타 임상실천논문도 실리지 않은 반면, 《노인복지연구》는 1편의 임상사회복지실천논문이 모델적용에 관한 논문이었다. 《한국사회복지학》에는 프로그램 소개 논문이 그 어떤 종류보다 더 많이 게재되었으며, 가장 활발히 임상사회복지실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정신보건과 사회

〈표 2〉 기타 임상실천 연구논문의 유형별 출현빈도

(단위 : 편, %)

학술지명	총수록 논문	기타 임상 실천논문 (a)	모델적용 및 사례연구 (b)	프로그램 개발연구 (c)	척도개발 연구 (d)	프로그램 소개 (e)
한국사회복지학	397	47(11.84)	6(12.77)	8(17.02)	3(6.38)	30(63.83)
한국아동복지학	69	2(2.90)	1(50.00)	1(50.00)	-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4	11(20.37)	7(63.64)	-	-	4(36.36)
한국가족복지학	24	4(16.67)	2(50.00)	1(25.00)	-	1(25.00)
학교사회사업	15	6(40.00)	-	1(16.67)	-	5(83.33)
노인복지연구	56	1(1.79)	1(100.00)	-	-	-
한국노년학	288	4(1.39)	-	3(75.00)	1(25.00)	-
직업재활연구	40	-	-	-	-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59	16(27.12)	10(62.50)	1(6.25)	-	5(31.25)
청소년학연구	65	1(1.54)	-	1(100.00)	-	-
정신보건	45	3(6.67)	-	1(33.33)	-	2(66.67)
한국영유아보육학	97	2(2.06)	-	1(50.00)	1(50.00)	-
사회복지	196	8(4.08)	2(25.00)	3(37.50)	1(12.50)	2(25.00)
계	1,405	105(7.47)	29(27.62)	21(20.00)	6(5.71)	49(46.67)

- (a) = 기타 임상실천논문/총수록논문; (b) = 모델적용 및 사례연구/기타 임상실천논문
 (c) = 프로그램개발연구/기타 임상실천논문; (d) = 척도개발연구/기타 임상실천논문
 (e) = 프로그램소개/기타 임상실천논문

사업》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는 모델적용 및 사례연구를 62~63% 수준으로, 프로그램 소개는 31~36% 수준의 비슷한 분포로 게재하고 있었다.

아직도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모델의 소개와 적용가능성의 논문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논문을 월등히 선회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학계의 임상사회복지실천 정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② 사례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연구의 특성

기타 임상사회복지실천 논문의 유형 중 임상실천의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는 모델적용 및 사례연구와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연구논문들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군은 다양하여 아동,

청소년, 알콜중독자, 정신과 환자,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가족문제를 가진 부부와 가족 등이었다. 개입한 문제는 정신건강(우울, 불면, 강박)과 부부갈등, 가족갈등, 의사소통 등이었다. 개입방법으로는 부부치료를 포함한 가족치료가 월등히 많아 12사례(41.38%)나 되었다. 집단치료, 행동치료, 과제중심모델치료가 각 1사례씩 차지하였으며, 개입 모델명이 없는 경우도 2사례나 있었다. 또한 '임상적 개입', '사회사업적 개입', '사회사업실천' 등 '사회사업적 임상실천' 방법론 자체를 모델화한 사례도 7개(24.14%)나 있었다(〈표 3〉 참조). 사례에 대한 개입의 효과는 물론 '효과 있다'였다.

프로그램개발 연구 역시 다양한 대상을 위한 것이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알코올, 실직자, 빈곤, 일반인 등이었으며, 노인, 청소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높았다. 개발된 프로그램 역시 대상만큼이나 다양하여 '놀이프로그램', '사례관리', '위기개입' 등이 있었으며, '~교육'이라는 교육적 모델이 4개, 부부집단을 포함한 '집단(사회사업)개입'이 5개를 차지하였다. 사례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사업실천 모형' 개발연구가 6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3〉 사례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연구에 나타난 임상실천 모델들

(단위 : 편, %)

임상실천모델	사례연구	프로그램개발
사회사업적 임상실천방법론	7(24.14)	6(28.57)
(부부)가족치료	12(41.38)	-
(부부)집단(사회사업)개입	1(3.45)	5(23.81)
~교육	-	4(19.05)
행동치료	1(3.45)	-
과제중심모델치료	1(3.45)	-
위기개입	-	1(4.76)
사례관리	-	1(4.76)
놀이프로그램	-	1(4.76)
모델명 없음	2(6.90)	1(4.76)
기타(퇴직준비교육, 지역사회재활, 학교-가정연계 등)	5(17.24)	2(9.52)
계	29(100.01)	21(100.00)

이처럼 많은 논문들이 '사회사업(복지)실천' 자체를 모델로 개발하였거나 이미 실행한 것은 한국 현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말고 개발된 모델의 지속적인 사용과 그에 대한 여러 차례의 다차원적인 효과성 검증의 과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일회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족치료나 행동치료 등 특성화된 임상적 치료방법의 활용도 좋지만 일반적인 (*generic*) 임상사회복지실천 방법의 효과적 활용도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2) 효과성검증 연구논문 분석

(1) 효과성검증 연구논문 출현빈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임상실천 효과성검증 연구논문의 출현빈도는 매우 낮다. 13개 학술지 1,405편의 논문 중 18개로 출현을 1.28%이다. 사회복지학회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에 1979년 창간호부터 1999년 39호까지 총 397편 중 8편이 실림에 따라 2.02%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은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의 《정신보건》으로 총 45편중 4편이 실려 8.89%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총 54편 중 3편이 실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으로 출현율은 5.56%이다. 각각 1편씩 실린 《한국 아동복지학》, 《한국노년학》, 그리고 《직업재활연구》에서의 출현율은 각 1.45%, 0.35%, 그리고 2.5%이다. 그러나 《한국가족복지학》, 《노인복지연구》, 《학교사회사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청소년학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그리고 《사회복지》에는 효과성검증 연구가 1편도 실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임상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Rosen 등(1999: 10)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의 13개 학술지 총 1,849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효과성검증 연구논문은 평균 6.8%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 출현율 1.28의 약 5배 정도의 분포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미국 역시 낮은 분포다. 효과연구가 가장 적게 게재된 학술지의 경우 2%의 출현율을 보이며,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의 경우 49%의 출현율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가장 낮은 학술지가 0.35%, 가장 높은 학술지가 8.89%로서 미국의 49%에 비해 약 1/5 정도 수준이

〈표 4〉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 출현빈도

학술지 명	학회 명	총수록 논문	효과성 검증논문	효과성 검증논문 출현률(%)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397	8	2.02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69	1	1.45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54	3	5.56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4	-	-
학교사회사업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15	-	-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56	-	-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288	1	0.35
직업재활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40	1	2.50
한국가족치료학회지	한국가족치료학회	59	-	-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68	-	-
정신보건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45	4	8.89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7	-	-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6	-	-
계		1,450	18	1.28

며, 전체 출현율이 미국 학술지 최저 출현율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효과성검증 논문이 전혀 없는 학술지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가족복지학》이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같은 경우 충분히 효과성연구가 게재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임상분야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제간 연구를 하고 있는 임상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경우 90년대 학술지의 효과성 연구 출현율이 어떠한지 목차 중심의 단순비교를 해 보았다. 정신의학의 경우, 연 6회 발간하는 《신경정신의학》에는 매 권당 25~30편의 논문이 실리는데 평균 2~4편 정도의 효과성 논문이 실리고 있으며, 임상심리의 경우, 연 1~2회 발간하는 《한국심리학: 임상》에 실리는 매 권당 10~13편의 논문 중 1편 정도가 효과성 논문이었다. 평균 출현율 10% 정도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학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의 현재 5.5%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출현율이다. 더욱 활발한 효과검증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임상심리의 경우 척도 개발연구가 주를 이루어 6%의 출현율을 갖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를 보였다.

(2) 효과성검증 연구논문의 특성

이 같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의 특성은 어떠한지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주로 어떤 이론적 근거로 프로그램을 적용시켰으며,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는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어떤 척도가 사용되었고 어떤 통계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지, 어떤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효과성판정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측면과 연구방법 측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① 내용분석

효과성검증 연구논문의 특성 중 내용적 측면에 관한 것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효과성연구는 1990년대 들어와서야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후반에 들어 활발해졌다. 1993년 정신장애 소아의 치료를 위한 부모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선두로 하여 1999년까지 총 18편이 게재되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세부 전공학회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매년 2~6편의 효과성논문이 출간되었다.

분야 및 대상별 특성으로는 정신장애가 가장 많아 5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는 각 분야별로 1편씩 연구되었다. 또한 방법론상으로는 집단접근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개별접근으로는 개인과 가족이 각각 1개씩이었다.

개입프로그램으로는 집단지도 및 집단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치료, 가족교육, 정신사회재활 등은 모두 16.67%의 동일한 출현율을 보였다. 사례연구나 프로그램개발연구에서는 임상사회복지실천 모델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효과검증에서는 그 같은 일반모델 보다는 집단치료나 정신사회재활치료 등 특수집단, 특정문제에 임상적으로 접근하는 “~치료” 모델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사례연구에서는 개별적 접근 방법이 집단개입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나, 효과성분석 연구에서는 집단개입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집단접근이 효과성분석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단일사례연구 방법론에 익숙하지 못해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단일사례연구시 효과를 크게 보이지 않아 논문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입문제는 사회재활문제가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22.22%, 가족관계 문제가 11.11%

〈표 5〉 효과성연구논문의 특성 : 내용 측면

항 목	내 용	N	%	비 고
게재연도	1993	1	5.56	《한국사회복지학》 + 세부전공학회지
	1996	1+1	11.11	
	1997	2+1	16.67	
	1998	2+4	33.33	
	1999	2+4	33.33	
	계	18	100.00	
대 상 (주요문제)	정신장애	9*	50.00	* 정신지체(1) 포함 ** 실직자(재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정서)	1	5.56	
	아동 및 청소년(비행)	2	11.11	
	알콜 및 약물	1	5.56	
	가정폭력	1	5.56	
	가족	1	5.56	
	장애인	1	5.56	
	노인	1	5.56	
	기타	1**	5.56	
	계	18	100.03	
임상실천 개입방법	개별접근	2*	11.11	* 가족치료(1) 포함
	집단접근	16	88.89	
	계	18	100.00	
임상실천 개입 프로그램	집단지도, 집단치료	5	27.78	* 동물매개프로그램(2); 작업치료(1)
	부부치료, 가족치료	3	16.67	
	부모교육, 가족교육	3	16.67	
	정신사회재활치료	3	16.67	
	위기개입	1	5.56	
	기타	3*	16.67	
	계	18	100.02	
개입문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정신건강	4	22.22	* 정신장애의 양·음성 증상 회복(1) 포함 ** 비행, 사회성, 공동의 존, 음주량감소, 능력 고취, 병지식, 자기주 장, 적응유연성 등
	사회재활	5*	27.78	
	인지기능	1	5.56	
	가족관계	2	11.11	
	기타	6**	33.33	
	계	18	100.00	
저자의 현직	대학교수	11*	61.11	* 강사포함
	실무자	0	0.00	
	대학교수와 실무자	7	38.89	
	계	18	100.00	
저자의 전공	사회복지	16	88.89	*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와 인접학문(공동연구)	2*	11.11	
	계	18	100.00	

를 차지하였다. 이 역시 실천현장에서의 개입문제의 순서라기보다는 개입 후 효과평가의 과학적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영역의 순서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가족관계 문제를 사실상 많이 상담해 주고, 또 그 효과도 보고 있지만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복지계의 산, 학협동이라 할 수 있는 임상실무자와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 논문은 7편, 38.8%였다. 반면에 실무자 단독의 효과성검증 연구논문이 게재된 경우는 0%였고, 60%가 넘는 11편의 논문이 대학교수 단독으로 쓴 것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대학교수가 실무현장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현실태를 감안해 볼 때, 개입하고 분석하고 논문화하는 작업이 교수 단독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교수들이 실무현장을 확보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실무자의 연구활동이 미흡한 것은 연구방법론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 뿐 아니라 실무자들 나름대로의 기관 연구논집에 발표(양옥경, 2000)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학제간 논문 역시 매우 낮은 출현율을 보여 11.11%인 2편에 그쳤으며 공동연구자는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사였다. 2편 모두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영역이었다.

② 연구방법론 분석

효과성검증 연구의 연구방법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83.33%)가 이론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론적 배경에서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주로 외국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천프로그램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경우는 33.33%에 그치고 있어 어떤 실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실험연구를 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보고 싶어도 연구논문의 내용만으로는 반복할 수 없다.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방법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표집된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어떻게 배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부족하였다. 표집대상을 무작위로 정확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혹은 비교집단에 배치한 연구는 6개 논문 중 단 1편도

〈표 6〉 효과성검증 연구논문의 특성 : 연구방법론 측면

항 목	내 용	N	%	비 고
이론제시	예*	3	16.67	* 행동주의, 해결중심, 스트레스 이론
	아니오	15	83.33	
	계	18	100.00	
내용소개	자세히*	6	33.33	* 반복해서 적용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소개함
	보통	5	27.78	
	소개없음	7	38.89	
	계	18	100.00	
표집	자발적 모임	8	44.44	대상자 선발 및 배치 등의 묘사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음
	전문가 추천	3	16.67	
	확실히 표현안함	7	38.89	
	계	18	100.00	
연구모형	실험 - 통제집단비교	4	22.22	
	실험 - 비교집단비교	2	11.11	
	단순집단비교	2	11.11	
	사전 - 사후비교	10	55.55	
	계	18	100.00	
가설제시	예	3	16.67	대부분 목표와 질문으로 가설을 대신 함
	아니오	15	83.33	
	계	18	100.00	
척도사용	예 1개사용: 8* 2개사용: 3 3개사용: 4 4개사용: 2	17	94.44	* 2개 연구는 자체개발 평가지 사용 ** 직접관찰과 면접(기록지 사용)
	아니오**	1	5.56	
	계	18	100.00	
통계방법	t test	1	5.56	* 한 연구에서 여러 통계방법을 중복사용함.
	paired t test	10	55.56	
	Wilcoxon test	3	27.80	
	Mann-Whitney Test	1	5.56	
	Permutaion test for paired samples	1	5.56	
	sign test	1	5.56	
	이원변량분석혼합설계	1	5.56	
	통계사용하지 않음	2	11.11	
	계	18	111.15*	
	효과성 판정	효과있음 판정	17	
효과없음 판정		1	5.56	
계		18	100.00	

없었다. 1편의 논문에서만 무작위 배치를 설계하였으나 모집인원의 부족으로 다른 방법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혹은 작위적 모집과 배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보충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미약하였다. 이는 통계 방법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사전-사후 비교 모형이나 단순집단비교모형의 경우 역시, 전문가나 교사의 추천, 자발적 참여 등으로 대상자가 집단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집단 구성의 설명이 미약하였다. 목표와 질문으로 가설을 대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83.33%). 연구모형은 사전-사후검증의 단일집단 사전-사후비교모형이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통제모형이 4개, 실험-비교모형이 2개, 그리고 단순집단비교모형이 2개였다. 실험-통제연구를 하였다고 하고는 실험연구에 관한 것만 논의하고 있는 경우도 1개 연구에서 보여졌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엄격한 의미의 실험/의사실험연구는 1편도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측정도구는 직접관찰을 하였던 1개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표준화되었다고 보고한(Cronbach's α 값 제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개 이상 4개까지 사용한 연구들도 많았다. 그러나 보고된 α 값이 척도개발자의 값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말로 번역한 과정 및 그 α 값의 보고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 척도들은 거의 모두 1회성 사용으로, 다른 연구에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8개의 척도는 가족 및 가족관계 관련 척도가 8종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Symptom Checklist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에 관한 척도(7종),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와 같은 문제해결척도(6종), 그리고 Self-esteem과 같은 정서, 행동적 측면의 척도(5종)들이 사용되었다. 18개 연구에서 사용된 28개 척도들 중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한 척도는 단 2개뿐으로 Index of Family Relation과 Symptom Checklist였다. 각 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종류는 <부록>에 정리해 놓았다.

통계방법으로는 paired t-test의 사용빈도가 55.56%로 가장 높았으며,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Wilcoxon test나 Mann-Whitney U test 방법 등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통계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paired t-test를 사용해야 하는데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한 연구가 1개 있었으며, t값을 보고하지 않고 p값만 보고하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3편의 연구가 있었다. 또는 paired t-test를 했는지 t-test를 했는지 모르게 두 방법을 무차별 사용하면서 t값 대신 F값을 보고하는 1편의 연구 등이 이런 경우이다. 사례수가 10개 미만으로

너무 적어(사례가 4개의 경우도 있음) 비모수적 추리 통계방법(non-parametric inferential statistics)을 사용해야 함에도 그냥 paired t-test를 한 경우가 4편의 논문에서 관찰되었고, 10~15개의 사례를 가진 4편의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잘못 사용하였다기보다 정확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사례의 개수 측면뿐 아니라 문제를 가진 집단의 경우 통계분석을 위한 모집단의 정상 분포나 동변량성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정대연, 1992)가 많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구의 결과가 효과가 있었다면 정말 있었나, 또는 없었다면 정말 없었나 등의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상의 오류는 우리뿐 아니라 타전문직의 논문에서도 종종 지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조수철 외, 1991), 정확한 통계방법론의 습득이 시급히 요청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실험통제연구이면서도 통제집단은 버려놓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증 내용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효과를 검증해 보이고 있으면서 통제집단에서는 효과가 없었다고만 보고하고 있다. 반면 1개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증 없이 실험-통제의 사후분석만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구의 엄청난 손실이라 할 수 있겠다. 엄연히 통제집단을 둔 실험연구를 하고도 실험집단만을 분석했다는 것은 방법론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오류를 범한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분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8개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통계의 부정확한 사용은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1개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에서도 실험집단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험설계상의 문제, 통계방법의 오류, 혹은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문제 중 어떤 것 하나 혹은 이 3개 모두가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실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문하게 한다.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 연구를 위하여, 통계방법의 명칭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각 논문마다 통계방법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paired sample t-test는 paired t 검증, paired t-test, one-paired t-test, 짝표본 평균 차이 검증, 쌍표본 t 검증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Mann-Whitney U test는 Mann-Whitney test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Wilcoxon matched-pair signed-ranks test는 Wilcoxon t, Wilcoxon matched-paired signed-rank one-way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의 용어로 표기하고 있었다. 틀린 방법론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확한 명칭, 또 통일된 한글명칭의 사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1개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부적인 측정도구의 영역에 따라 효과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연구를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효과성연구 결과에 의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 18개 연구 중 실험-통제연구모형에 의한 실험연구의 효과성검증은 단지 4편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연구방법론이 정확하지 못해 '효과 있다'는 연구의 결과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0편에 달하는 사전-사후비교연구모형에 의한 의사실험연구의 효과성검증은 역시 정확하지 못한 연구방법론의 영향으로 그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모든 연구에서 효과를 보인 부분과 함께 효과를 전혀 보이지 못한 영역이 있음에 따라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임상사회복지실천이 효과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연구설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성검증이 미흡한 것이 연구설계의 문제인지, 통계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임상사회복지실천 모델 자체의 문제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잘 설계된 통제연구와 사전-사후비교연구에 의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기 전에는 임상사회복지실천이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설계된 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는 논문은 총 1,405편에 달했으며, 그 중 123편인 8.75%가 임상실천 논문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18편(전체 출현율 1.28%)이 효과성 검증 논문이었다. 이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임상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내용면에서 보면, 사례연구나 프로그램개발에서는 임상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효과성검증에서는 더욱 세분

화된 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적용되는 차이를 보였다. 효과검증 연구의 연구방법론적 오류는 조속히 수정해야 할 대목으로, 이에 대한 학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부각되었다. 연구설계부터 대상의 모집과 배치, 그리고 통계방법 활용까지 연구방법론의 오류를 범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욱 발전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위상을 조속히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임상사회복지실천 모델의 개발 및 개발된 모델의 효과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임상실천가들과 임상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교수들의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임상부분이 가장 잘 발달하였다는 미국의 경우도 임상연구가 부족했었다. 이에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는 Task Force on Social Work Research를 1991년 발족하여 그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도 사회복지학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임상사회복지연구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출범시켜 계획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임상사회복지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Thyer 등(1997: 315)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수들이 연구년 등을 갖게 될 때 임상에 관련된 실무현장에서 연구년을 보내도록 적극 후원하는 것이다. 분석에서 보았듯이 교수들은 이미 단독으로 개입논문들을 써왔다. 이에 덧붙여 임상실천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임상연구논문을 작성한다면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학문인 사회복지학은 임상실천가와 학계간의 팀워크의 형태를 통해 발달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노력은 효과성 연구논문의 출현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현장성, 전문성, 그리고 체계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계에 고질병처럼 등장하는 효과성 유·무의 논의에도 일단락을 짓게 하는데 공헌을 할 것이다.

둘째, 이론정립이 필요하다. 임상사회복지의 실천 모델에 있어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미약하다. 실천학문으로서 실무현장에의 실현가능성, 효과적 실현과정 등에만 집중적인 지식습득을 하다 보니 이론에 대한 지식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이론의 습득 및 활용뿐 아니라 실천현장에서 관찰한 것에 대한 이

론화 과정 역시 부족하다. 이론화를 위한 현장에서의 질적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재교육이 시급한 때이다. 아직까지 외국의 이론과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이론과 방법론의 개발이 있어야 할 때이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원 등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실천방법론과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실천방법론을 개발하고, 외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방법론 등을 입수하여, 임상실무 현장에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천방법론 교육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구방법론과 사회복지통계를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더 나아가 임상실천의 효과성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재교육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고급통계의 습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통계부터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통합적 인간과학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은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 범주를 포함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론을 사용하는 임상사회복지실천에서는 더욱 시급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국가 수준에서의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보사연은 주로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조사만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임상적 실천에 관한 활발하고 왕성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이 같은 연구원은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현장을 향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National Center for Social Work Research의 설립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워낙 실적물이 적어 시대별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저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실무현장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교차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적물이 쌓이면, 이 같은 교차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메타분석과 같은 고급통계 방법에 의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연구가 방법론상의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이전에 연구논문들의 성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김성천·노혜련·최인숙. 1996.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 기법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8호. pp. 101~133.
- 김성천·노혜련·최인숙. 1998.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갖게 된 청소년에 적용한 동물매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5집. pp. 85~99.
- 김성천·노혜련. 1998. “치료감호소의 만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6호. pp. 1~20.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pp. 85~106.
- 김영숙. 1999.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작업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권 3호. pp. 167~179.
- 김재엽·양혜원·이근영. 1999. “아내구타 피해여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pp. 68~99.
- 박귀서·이영호·심경순. 1998. “가족교육이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5집. pp. 101~122.
- 박현선.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pp. 35~58.
- 송성자. 1999. “한국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적용과 개발과제.” 《9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새천년을 향한 한국의 사회복지》 10월. pp. 55~82.
- 양숙미. 1999. “정신지체 성인자녀를 가진 부모의 부담완화를 심리교육적지지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직업재활연구》 제9집. pp. 165~195.
- 양옥경. 2000.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임상적 실천.”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엄예선·김미혜·이은주·윤명숙. 1997. “알콜중독자 부부집단 프로그램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알콜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부부집단 개입 프로그램 개발연구(IV).”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 pp. 339~368.

- 윤현숙. 1997.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33 호. pp. 262~286.
- 이상균. 2000.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40 호. pp. 131~156.
- 이영분·김유순. 1998.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35 호. pp. 263~288.
- 이영분. 1993. "소아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부모 역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21 호. pp. 122~143.
- 이익섭, 김근식. 1999. "청소년 비행화 과정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37 호. pp. 381~405.
- 전석균·박소라·이현주. 1999. "정신분열환자와 가족을 위한 행동적 가족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8 집. pp. 177~197.
- 정대연. 1992.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 조수철·안윤옥. 1991. "'정신의학'에 발표된 논문들의 통계방법의 기술 및 적용의 오인에 관한 연구." 《정신의학》 제 16 권 제 2 호. pp. 150~157.
- 최 균. 1995.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과제."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4월. pp. 1~14.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34 호. pp. 215~245.
- Allen-Mears, P., B. A. Lane. 1990. "Social Work Practice: Integra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Collection Techniques." *Social Work*. 35(5). pp. 452~458.
- Crisp, Beth R. 2000. "A History of Australia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0(2). pp. 179~194.
- Ell, K. 1996. "Social work and health care practice and policy: A psychosocial research agenda." *Social Work*. 41. pp. 583~592.
- Fisher, J. 1973. "Is Casework Effective? A Review." *Social Work*. 18. pp. 5~20.
- Fortune, Anne E. 1999. "Editorial: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23(1). pp. 2~3.
- Gorey, K. M. 1996. "Effectiveness of social work intervention research: Internal versus external evaluation." *Social Work Research*. 20. pp. 119~128.
- Gorey, Kevin M., Bruce A. Thyer, and Debra E. Pawluck. 1998.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Prevalent Social Work Practice Models: A Meta-Analysis." *Social Work*. 43(3). pp. 269~278.

- Hartman, A. 1990. "Many Ways of Knowing." *Social Work*. 35(1). pp.3~4.
- Heppner, P. Paul, Dennis M. Kivlighan, Jr. and Bruce E. Wampold. 1992. *Research Design in Counselling*.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ogarty, G. E. 1989.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ractice with the chronically mentally ill: A critique and reappraisal of the literature." *Social Work*. 34. pp.363~373.
- McMahon, M. O., M. Reisch, and R. J. Patti. 1991. *Scholarship in social work: Intergration of research, teaching, & service*. Washington, D. C. : National Association of Deans and Director of School of Social Work.
- Preston, M. G., and E. H. Mudd. 1956. "Research and service in social work: Condition for a stable union." *Social Work*. 1(1). pp.34~39.
- Reid, William J., and Patrica Hanrahan, 1982. "Recent Evaluations of Social Work: Ground for Optimism." *Social Work*. July. pp.328~340.
- Rosen, Aaron., Enola K. Proctor, and Marlys M. Staudt. 1999. "Social work research and the quest for effective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pp.4~14.
- Rubin, A. 1985. "Practice Effectiveness: More Grounds for Optimism." *Social Work*. 30(6). pp.469~476.
- Rubin, Allen. 1999. "Editorial: Toward a National Center for Social Work Research."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9(5). pp.539~540.
- Rubin, Allen. 2000. "Editorial: Social Work Research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Progress and Challeng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0(1). pp.9~14.
- Smith, R. 1996. "VA shake-up signals a role shift." *NASW News*. 47(1). p.3.
- Thomlison, R. J. 1984. "Something Works: Evidence from Practice Effectiveness Studies." *Social Work*. 29. pp.51~56.
- Thyer, Bruce A. 2000. "Editorial: A Decade of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0(1). pp.5~8.
- Thyer, Bruce A., Alicia Isaac, and Rufus Larkin. 1997. "Integrating Research and Practice." in Michael Reisch, Eileen Gambrill(eds.). *Social Work in the 21st Century*. Thousand Oak: Pine Forge Press. pp.311~316.
- Videka-Sherman, L. 1988. "Meta-analysis of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33. pp.325~338.
- Wampold, Bruce E., Gregory W. Mondin, Marcia Moody, Frederic Stich, Kurt Benson and Hyun-nie Ahn. 1997. "A Meta Ananlysis of Outcome Studies Comparing Bona Fide Psychotherapies: Empirically, 'All Must Have Prizes'." *Psychological Bulletin*. 122(3). pp.203~215.

Wood, Katherine M. 1978. "Casework effectiveness: a new look at the research evidence." *Social Work*. November. pp. 437~459.

〈부 록〉 효과성연구에서 사용된 각종 측정도구들

영역	척도명
정신과적 증상	1. Korean-Dementia Rating Scale 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3. Symptom Checklist-90-Revised (2) 4.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ed Mood Scale 5. PANSS 6. Beck Depression Inventory 7. Self-Rating Anxiety Scale
가족 및 가족관계	1.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2. Index of Family Relation (3) 3. Index of Parental Attitudes 4. Child's Attitude toward Mothers 5. Child's Attitude toward Fathers 6. Co-dependency Assessment Inventory 7.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8. Inventory of Marital Satisfaction
정서적, 행동적 측면	1.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2. Self-Esteem 3. Daily Hassles Scales: Hassles 4.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5. Aggression Questionnaire
문제해결 측면	1.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2. Rathus Assertiveness Scale 3. Assertive Job Hunting Survey 4. Checklist for Daily Living Skills 5. Social Behavior Scale 6. Youth Coping Scale
기 타	1. Group Environment Scale 2. Life Satisfaction Self-Rating Scale 3. 자체개발평가지

주: () 안의 숫자는 그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수.

Analysis on Effectiveness Research of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Ok Kyung Yang, MSSW, Ph.D.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articles o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effectiveness to build a scientific and scholaristic image of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The data for analysis were the articles published in 13 professional journals including *Korean J. of Social Welfare* in the period of 1979 to 1999. The appearance rate of effectiveness studies was 1.28% with only 18 articles. Experimental studies consisted only 4 out of 18, and there were only 10 Quasi-experimental studies. Statistical errors were observed in most studies, so it is too early to call that the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is either effective or not effective. In order to see the comprehensive trends of the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other clinical papers were also examined. The appearance rate was also as low as 8.75% (effectiveness studies included). While 18 articles were about the therapy model, other clinical papers were about generic practice models. However, those newly developed generic practice models had not yet been widely used nor tested for effectiveness. Thus,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active research activities with solid methodology, team work with the field, theory and method development, education and re-education, and collaborative team work with other related fields. It was also pointed that the cross analysis of research papers by the publishing period, authors major and other background variables would be useful.